

보도자료

Press Release

제 공 일 : 2010. 12. 16
생산부서 : 농지은행처
담당자 : 팀장 : 김준채
연락처 : 031-420-3341
쪽 수 : 3 P
홍보팀 : 오석동 031)420-3320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배포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公,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촌 고령화의 벽 넘는다

고령농업인의 어려움 해결하고 농촌활력 증진도모

□ 농어촌의 고령화와 활력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이 농어촌 고령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어촌 활력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 우리나라 농어촌 고령화율 : 농어민 330만명 중 34%가 65세 이상

□ 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재 농지은행사업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농지연금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은퇴, 전업·이농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를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고령으로 영농에서 은퇴하거나 이농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대규모의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나,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농어촌 여건상 매입 희망자를 쉽게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다.

- 또한, 이 사업은 전업농뿐만 아니라 창업농, 귀농인 등 농업인이면 누구에게나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활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어촌공사는 올해 최초로 750억원의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1년에는 사업량을 크게 늘려 올해 사업비의 두배 수준인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농지임대수탁사업도 고령 등으로 자경하기 곤란한 농지나, 구두 계약에 의한 단기간의 관행 임대차 농지 등을 공적기구인 농지은행에서 임대 위탁 받아,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장기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보와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이 시작된 '05년 이후 현재까지 총63,342농가를 지원하고, 155,402필지 36,059ha를 임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지연금사업도 소득기반이 열악하여 적절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농어촌 고령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지연금사업은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연금에 가입하는 해당 농업인은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평생보장 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일정기간만 보장받는 기간형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 연금 가입조건은 부부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ha이하 이다.
- 사업시행 5년차를 맞고 있는 경영희생지원사업은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다.

-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재해, 부채 등으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고, 해당 농가는 매각 대금을 활용, 부채를 청산토록 하여, 부채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 하는 사업이다.
 -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등은 당해 농가에서 7~10년간 매도금액의 1%이내의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속경작 하게되며, 당해 농업인 에게는 환매권을 부여하여,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없이 성실한 영농을 통해 마련한 환매자금으로 해당 농지 등을 재매입 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 받게된다.
 - 농어촌공사는 '06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6,124억원을 투입하여, 2,658농가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위기에 처한 많은 농가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 이러한 성과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4년연속 농정 최우수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고령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질적 복지 정책으로 농지은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농지연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